

로베의 연극 『세비야의 별』에 나타난 비극성 연구

윤 용 욱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황금세기 스페인 연극의 대표적 걸작으로 평가되는 『세비야의 별』은 17세기의 대표적인 극작가인 로베의 비극작품이다. 그러나 이 연극은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로베의 창작 진위 여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로 인해 스페인에서도 작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비극성을 크게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과 셰익스피어적 관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극은 주인공들의 고귀한 사회적 신분이나 남자주인공 산초 오르띠스의 고뇌하는 적절한 대사 등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적 비극의 핵심적 본질인 '절대적 운명에 저항하는 주인공의 자유의지'의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연극에는 절대적 운명을 형성하는 핵심적 장치인 하마르티아가 부재하고, 이에 따라 절대적 운명이나 운명의 불가항력성이 설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연극이 지닌 비극성은 셰익스피어적 관점에서 좀 더 온전하게 규명되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셰익스피어는 비극성을 주인공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여긴다. 즉 절대적 운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주인공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으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연극의 두 가지 비극적 사건인 부스또의 죽음과 산초 오르띠스와 에스뜨레야의 이별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전황을 휘두른 국왕 산초 4세의 비뚤어진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산초 오르띠스의 국왕에 대한 지나치게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절대적 권력의 부당함 앞에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한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절망감이야말로 이 연극의 비극적 결말을 목격하며 관객들이 느꼈을 비극적 감정인 것이다.

주제어 : 절대적 운명, 성격,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 셰익스피어적 관점, 로베의 비극

I. 시작하는 말

17세기 스페인 국민연극의 창시자 로페 데 베가(Lope de Vega)의 비극 『세비야의 별 *La estrella de Sevilla*』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황금세기 스페인 연극의 대표적인 걸작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연극에 대해서는 로페의 창작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논란들이 있어 왔고,¹⁾ 이로 인해 이 연극이 지닌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조차도 작품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비극성을 크게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과 셰익스피어적 관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이 연극이 지닌 비극성의 실체와 본질을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미약하나마 이러한 시도는 이 연극의 원작자에 대한 규명 쪽으로 다소 치우쳐진 기존의 연구를 좀 더 균형 잡힌 다양한 연구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서 기능하리라 사료된다.

II.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

1. 카타르시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6장에 나타난 비극에 대한 정의의 핵심은 ‘카타르시스’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동안 카타르시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어져 왔는데, 이

1) 이에 대해서는 로드리게스(Rodríguez) 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작가에 대한 진위의 여부는 그동안 유별나게 활발히 논의되어져 왔다. 이 문제는 일찍이 메넨데스 이 펠라요(Menéndez y Pelayo)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었고, 최근 들어서는 발부에나 뿌랏(Valbuena Prat)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Alfredo Rodríguez López-Vázquez, “La Estrella de Sevilla y Claramonte”, *Criticón* Núm. 21, 1983, p. 6.)

에 대해 김상봉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그 동안의 분분했던 해석들을 관통하는 보다 명시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포와 연민을 통해 그와 비슷한 감정들의 카타르시스를 수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이러한 공포로부터 다시 타인의 고통으로 건너가 그에 대해 연민을 느낌으로써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사사로운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카타르시스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초월하고 극복한다는 말입니다.²⁾

다시 말해, 비극의 주인공이 무대에서 겪는 슬픔과 고통을 목격하고 감정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관객들은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사로운’ 슬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의 카타르시스가 지니는 감정의 정화 또는 치유의 기능인 것이다. 이러한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바로 감정이입과 주인공의 사회적 신분이 그것이다. 감정이입은 앞서 언급한 비극적 주인공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감정적 동참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객들이 비극적 주인공과 자신을 심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객이 자신을 무대의 비극적 주인공이라고 심리적으로 착각하게 되어야 그 비극적 주인공의 고통과 슬픔에 감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성격이 관객들로 하여금 감정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시학』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둘째는 성격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자도 용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용감하거나 똑똑한 것은 여자의 성격으로 적합하지 않다. 셋째는 작품 속에 나오는 성격이 전래의 스토리에 나오는 그 원형(原型)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방금 규정한 바 있는, 성격이 선량

2) 김상봉, 『그리스비극에 대한 편지』, 천병희 역, 한길사, 2004, 293쪽.

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넷째는 성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일관성이 없고,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는 일관하여 일관성이 없어야 한다.³⁾

이는 로뻤도 자신의 『신극작술 *Arte nuevo de hacer comedias*』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그대로 받아들인 비극적 주인공의 성격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왕이 등장하였다면, 배우는 가능한 한 왕의 근엄함을 모방하여야 하고, 나이 많은 연장자가 등장하였다면, 진지한 어투의 겸손함을 나타내려고 애써야 할 것이며, 연인들은 아주 달콤하게 묘사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커다란 감동을 주게 할 것이고, 독백은 이를 읊는 배우 자신이 그 분위기에 한껏 도취되어 이를 듣는 관객을 감동시키는 방향으로 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269행-276행)⁴⁾

카타르시스에 대한 두 번째 전제조건인 주인공의 사회적 신분은 비극의 주인공의 사회적 신분이 “큰 명망과 번영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⁵⁾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만일 비극적 주인공의 신분이 큰 명망과 번영을 누리는 자가 아닌 단순한 일반 서민이라면 그가 극중에서 겪는 슬픔이나 고통이 관객들이 일상에서 겪는 사사로운 슬픔이나 고통과 비교해서 그 정도나 질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관객은 자신의 사사로운 슬픔이나 고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극중 주인공의 슬픔과 고통을 목격하며 감정의 정화나 치유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하는 로뻤의 극작품 『세비아의 별』에 등장하는 비극적 주인공들의 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큰 명망과 번영을 누리는 자’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극

3) 아리스토텔레스, 호라티우스, 플라톤, 『시학』, 문예출판사, 1993, 86-87쪽.

4) Lope de Vega, *Arte nuevo de hacer comedias*, Madrid: Castalia, 2011, pp. 324-325.

5) 아리스토텔레스, 호라티우스, 플라톤, 앞의 책, 75쪽.

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비극적 사건인 부스또 따베라(Busto Tabera)의 죽음과 사랑하는 연인들인 산초 오르티스(Sancho Ortiz)와 에스프레야(Estrella)의 슬픈 이별을 둘러싼 모든 사건은 예외 없이 스페인의 국왕인 산초 4세와 그의 부하와 신하들이라는 절대적으로 고귀한 신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비극적 사건에 모두 직접적으로 간여된 남자 주인공 산초 오르티스는 다음의 대화에서 보듯 엘시드(El Cid)에 견줄 만큼 국토회복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고귀하고 유명한 기사로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아리아스 소인이 폐하께 용감하고 위대한 기사 한 명을 알려드리고자 하옵니다. 그 기사는 지브롤터에서 모로족들이 두려워하였던 명성 높은 기사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항상 승리하였던 장군이었고, 패배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세비아의 수많은 군사학교에서는 그를 용감하고 능률한 첫 번째 기사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왕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리아스 산초 오르티스 델 라스 로엘라스라 하옵니다. 안달루시아의 엘시드라고도 불립니다.(1205행-1219행)⁶⁾

또한 산초 오르티스가 향후 겪게 되는 에스프레야와의 애절한 사랑과 왕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의 극심한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이 야기하는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말 등은 극작가 로페가 감동적이고 절묘하게 묘사한 산초 오르티스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와 관객들의 심금을 울릴 만큼 극심한 그의 내적 번뇌를 나타내는 대사들을 통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산초 오르티스가 겪고 있는 깊은 슬픔과 고통에 감정적으로 동참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초 오르티스는 자신의 연인 에스프레야의 오빠인 부스또가 자신과 에스프레야의 혼인을 서둘러 치르겠다는 낭보를 접하고 그 낭보가 쓰여 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다음과 같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나타낸다.

6) Lope de Vega, *La estrella de Sevilla*, Madrid: Cátedra, 1991, pp. 198-199. 향후 본 작품에 대한 인용 시 별도의 각주 처리 없이 인용문 끝에 해당 행수만 밝히기로 한다.

아, 신성하고 자애로운 편지의 행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금으로 된 판들보다 그대들이 더 영원하게 머물 곳인 나의 영혼 안에 그대들을 새겨 넣기 위해 그대들에게 입맞춤하여 그대들을 들이마시고 싶도다! 끌라린도여, 나를 안아다오. 나는 그대처럼 멋진 남자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네.(1614행-1620행)

그러나 자신이 갑자기 너무 큰 기쁨에 도취한 나머지 좀 전에 왕으로부터 왕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자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편지를 받아온 것을 깜빡 잊은 것이 생각나 산초 오르피스는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서둘러 열어본다. 편지에 적힌 자를 자신이 직접 처단하기로 왕과 굳은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초 오르피스는 편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하고 마는데, 편지에 적힌 이름이 바로 자신과 에스프레야의 결혼을 서둘러 허락한 그녀의 오빠 부스또였기 때문이다. 기쁜 소식에 떠들썩한 자신 앞에 갑자기 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마주보며 산초 오르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깊은 탄식을 내뿜는다.

커다란 행운 바로 뒤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라니! 이 인생은 온갖 불행들과 고통들에 얽매어서 마구 뒤섞여진 불완전한 카드들로 하는 카드놀이와도 같구나. 카드놀이처럼 이 인생 전체가 수백 개의 피할 수 없는 불행들 안에 있는 것 같도다.(1674행-1680행)

이어서, 처남이 될 부스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할지, 아니면 국왕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치욕을 선택해야 할지, 앞으로 자신이 내려야 할 무시무시한 결정 앞에서 산초 오르피스는 전율하고 만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참혹한 비극적 결과는 결국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산초 오르피스는 다음과 같이 절규하며 극단적인 그의 심적 번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에 이른다.

정신을 잃을 것 같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왕에게 내 처남을 죽이겠다고 약속한 셈이 돼버렸어. 이 바람에 나는 사랑하는 내 여인을 잃게 될 거야. 산초 오르피스여, 이럴 수는 없어. 부스또는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건 희망과 명예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고, 그건 옳지

않아. 부스또는 죽어야 한다. 부스또는 죽어야 해. 하지만 이 잔인한 손들이 멈춰라. 부스또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 그러나 내 사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명예만을 지킬 수는 없어. 하지만 누가 사랑의 힘에 저항할 수 있었는가? 내가 없어지거나 죽어버리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면 폐하께도 해가 되지 않고 부스또도 죽지 않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난 왕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약속했는데.(1691행-1708행)

이후 산초 오르피스는 ‘부스또는 죽어야 한다. 부스또는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극심한 심적 갈등과 번뇌에 빠진다. 이러한 그의 극단적인 슬픔과 번뇌는 결국 그가 부스또를 살해한 후 사람들에게 붙잡혀 포로의 신세가 되면서 절정에 이른다. 왕의 명령에 의한 행위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아내가 될 여자의 오빠를 죽였다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 끝에 다음에서 보듯 그는 정신착란의 증세까지 보이게 된 것이다.

플라린도 이 수많은 모욕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산초 남자들이 나를 벌하고 하늘이 나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것에 나는 동의하네. 그런데, 플라린도, 이미 시작되었군. 혼란스러운 큰 소리가 들리지 않나? 번개와 천둥으로 무장한 바람들이 울부짖고 있네. 그중 하나가 재빠르게 동그런 화염을 흩뿌리며 마치 구렁이처럼 내 위로 내려오고 있어.

플라린도 나라께서는 제정신이 아니시네요.(2340행-2351행)

왕의 명령이라는 절대적인 의무와 사랑하는 여인과의 행복한 결혼 중 하나를 희생해야만 하는 산초 오르피스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내적 갈등과 번민은 이렇듯 산초 오르피스의 적절한 대사들과 연기를 통하여 관객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인 극적 감정이입이 남자주인공 산초 오르피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2. 하마르티아의 부재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의 정의에서 카타르시스가 그 핵심적 개념인 것은

맞지만 이 그리스 철학자가 자신의 『시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극의 핵심적 본질들이 모두 이 카타르시스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카타르시스는 비극이 수행하는 궁극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이고,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적 비극을 이루는 핵심적인 본질은 ‘절대적 운명에 저항하는 주인공의 자유의지’로부터 출발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적 비극의 주인공에게 주어진 운명은 인간인 주인공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절대적 운명에 저항을 하고 이로 인해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극의 본질적 실체인 것이다.⁷⁾ 따라서 온전한 비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극의 주인공이 자유의지를 갖고 저항할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사전에 설정되기 마련인데, 비극적 운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 불가항력성은 아리스토텔레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부여된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hamartia)’라 불리는 ‘중대한 과실’ 또는 ‘비극적 결함’인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13장에서 비극의 이상적 플롯을 설명하면서 “주인공의 운명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비행에 있어서는 안 되고, 중대한 과실에 있어야 한다.”⁸⁾라고 언급한 것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언급된 ‘중대한 과실’은 사실 주인공의 도덕적 양식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그 과실로 인한 결과는 충분히 도덕적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오늘날의 ‘하마르티아’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비극적 주인공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저지른 도덕적인 잘못 혹은 어떤 악에서도 벗어나 있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비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저지른 도덕적 잘못”⁹⁾이라고 할 수 있다.

7) 김상봉 교수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이나 폭력적인 정치권력 앞에서 자기가 무기력하게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이 결단하고 행위합니다. 이 자유로운 결단과 행위가 비극을 낳습니다. 그런 한에서 그리스비극의 주인공들은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비극적 상황을 조성하게 됩니다.(김상봉, 앞의 책, 110쪽.)

8) 아리스토텔레스, 호라티우스, 플라톤, 앞의 책, 75-76쪽.

9) 민병욱, 『희곡문학론』, 민지사, 1991, 178쪽.

로베의 『세비아의 별』에서 이와 같은 ‘하마르티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인공들의 비극적 결과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극에 나타난 비극적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부스포의 죽음과 산초 오르피스와 에스프레야의 슬픈 이별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당사자들인 국왕 산초 4세, 부스포, 산초 오르피스, 에스프레야의 행적들을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마르티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 국왕 산초 4세는 부스포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장본인이지만 그가 산초 오르피스에게 부스포의 처단을 명령한 동기는 어떤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산초 4세는 부스포의 여동생인 에스프레야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몰래 만나려고 그녀의 집에 숨어들었다가 부스포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그에게서 심한 모욕을 당한 뒤 그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즉, 국왕의 다음의 대사에서 보듯 부스포의 죽음은 오직 국왕의 사적인 원한 때문이었던 것이다.

세비아를 뒤흔들어놓은 부스포와 에스프레야를 내가 죽이고야 말겠
다. 부스포가 처형한 저 하녀를 조용히 물어주도록 하여라. 국왕을 이런
식으로 능멸해? 부스포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세비아에 한 명도 남겨두
지 않을 것이다. 나쁜 놈! 부스포 가문의 사람들을 내 손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처단하겠다.(1243행-1254행)

부스포 역시 어떤 치명적인 실수나 오해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밤에 자신의 집으로 몰래 숨어들어온 자가 국왕 산초 4세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그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면 이로 인한 그의 죽음은 하마르티아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다음의 대사에서도 보듯 부스포는 침입자가 국왕 산초 4세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 챘다.

(방백으로) 복면을 한 자는 왕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를 그냥 지
나가도록 해야겠다. 하지만 자기가 나를 모욕했다면 내 영혼이 자극을 받
아 분노하리라는 것도 그가 깨닫도록 해주겠다.(1049행-1054행)

산초 오르피스의 경우도 하마르티아라고 할 만한 중대한 과실이나 오해

를 발견할 수 없다. 그는 왕의 그릇된 복수심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부스또를 살해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이 제거해야 할 인물이 누구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고, 또한 부스또를 제거하게 되면 그의 여동생 에스프레야와의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자신을 풀어주고자 하는 에스프레야에게 한 다음과 같은 그의 대사가 이를 보다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벌하도록 놔두시오.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요. 자기 오빠를 죽인 자를 풀어주다니! 그는 나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내가 살아있는 건 옳지 않소. 친구를 그런 식으로 죽인 나는 당신을 잃어야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오.(2584행-2593행)

결국 산초 오르피스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는 슬픈 결말을 맞게 되지만 그것이 어떤 중대한 실수나 오해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에스프레야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는 끝까지 산초 오르피스를 사랑했지만, 결국 그와 이별하는 슬픔을 겪는다. 그러나 다음의 대화에서 보듯 그와의 이별은 어떤 치명적인 과오나 실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겪은 것이 결코 아니고 단지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에스프레야. 식탁에서 그리고 침대에서 제 오빠를 죽인 자를 항상 봐야한다는 건 제겐 고통일 겁니다.

산초. 그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녀는 내가 부당하게 죽인 자의 여동생이고 그런 그녀와 항상 함께 있어야한다는 건 제게도 고통입니다.

에스프레야. 그렇다면 우리 서로 헤어지는 게 좋지 않나요?

산초. 맞습니다.

에스프레야. 그럼 안녕.

산초. 안녕.(2984행-2991행)

극의 말미에서 왕은 산초의 무죄를 증명해준다. 그리고 산초와 에스프레야가 변함없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혼인을 허락하려 했지만, 위에서 보듯 에스프레야와 산초는 서로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별

을 택했던 것이다.

3. 절대적 운명과 주인공들의 자유의지의 부재

로베의 『세비야의 별』에서 하마르티아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운명과 그 운명에 저항하는 주인공들의 자유의지의 부재로 연결된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리스토텔레스적 비극의 핵심은 절대적 운명에 저항하는 주인공들의 자유의지인데, 이 절대적 운명을 형성하는 핵심적 장치인 하마르티아의 부재로 인해 이 연극에서는 주인공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항할 운명의 불가항력성이 빛을 잃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슬라 캄벨(Ysla Campbell) 교수 역시 이 연극에서 불가항력적 운명의 부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로베가 이 비극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간의 저항은 불가항력적인 운명이나 예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 설립되어진 왕권에 대한 저항이다. 이를 통해 로베는 황금세기 스페인의 군주에 대한 개념을 옹호하는 기능에 상반되는 지배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¹⁰⁾

이 연극에 나타난 두 가지 비극적 사건 중의 하나인 부스또의 죽음을 먼저 살펴보면, 이 연극 어디에서도 부스또의 죽음이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 묘사되거나 암시되지 않는다. 연극의 1막에서 에스뜨레야의 미모에 반한 산초 4세가 그녀를 취하기 위해 그녀의 오빠인 부스또를 불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왕. 짐이 직접 그대의 여동생을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와 결혼시키도록 하겠다.

부스또. 폐하께 황공할 뿐입니다.

왕. 부스또여, 짐이 그녀의 신분에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남자를 그녀에게 남편으로 줄 것이다. 짐이 그녀에게 중매를 설 것이고 결혼식에서

10) Ysla Campbell, "Filosofía moral en *La estrella de Sevilla*," *Lectura y signo* Vol. 2, 2007, p. 35.

그녀의 대부가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알리도록 하라. 짐이 그녀에게 결혼
지참금을 선사하고 싶구나.(416행-423행)

이 대목에서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인물은 부스토파가 아니라 오히려 에스
프레야의 연인인 산초 오르피스일 것이다. 아마 당시의 관객도 이 대목에서
왕과 에스프레야와 산초 오르피스 사이의 심각한 삼각관계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결국 부스토파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건 개연성이 적어 보인다.
게다가 다음에서와 같이 부스토파가 왕이 한 말을 에스프레야의 연인인 산초
오르피스에게 전하는 장면에서도 외견상 부스토파의 비극적인 운명보다는 오히려
산초 오르피스의 불행이 더 많이 암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초. 나에게 무엇인가 큰 근심거리가 생길 것만 같네.

부스토파. 폐하께서 나에게 본인이 에스프레야를 결혼시킬 테니 그녀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셨네. 본인이 직접 그녀를 결혼시키고 싶기 때문이
라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결혼지참금을 주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
대로 그녀에게 결혼지참금과 남편을 주시겠다는 거야.

산초. 자네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저
슬픔만 있어왔네. 자네는 덕을 얻었고 나는 슬픔만 붙잡고 있네.(619행
-629행)

이 대화 이후 부스토파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따라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도
없다. 그의 죽음은 충분히 비극적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자유의
지를 갖고 운명에 저항한 불행한 결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연극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비극적 사건인 산초 오르피스와 에스프레
야의 이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다. 물론 극의 초반에 에스프레야와의 결
혼이 자꾸 미뤄지자 산초 오르피스는 에스프레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불길한 결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는 한다.

산초. 그대 오빠는 뭐라고 하던가요?

에스프레야. 문서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결혼은 분명

히 이행될 거랍니다. 하지만 오빠가 더 준비할 게 있어서 결혼식이 며칠 더 연기될 거랍니다.

산초. 나의 사랑이 불행한 결말을 맞기를 바라는 것 같소. 시간이 내 사랑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오.(555행-563행)

그런데 이 대목이 설령 두 사람의 슬픈 이별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초 오르피스나 에스프레야의 저항은 연극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산초 오르피스가 고뇌하고 괴로워한 것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에스프레야와의 이별이 아니라 그녀의 친오빠를 자기 손으로 제거해야 하는 황당하고 참혹한 상황이었다. 즉, 이 연극에서 정신착란의 증세에 이르도록 산초 오르피스의 마음속을 줄곧 차지하였던 것은 에스프레야와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의 친오빠를 살해하면서까지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번민이었고, 부스또를 제거한 후에는 그를 왜 살해했는지에 대해 절대로 발설하지 않음으로써 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야겠다는 결심뿐이었던 것이다. 살인죄로 붙잡힌 산초 오르피스와 그를 취조하는 원로 시장 파르판(Farfán) 간의 다음의 대화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파르판. 그렇다면 그대는 아무런 동기도 없기 그를 죽였던 말ियो?

산초. 내가 그를 죽였소. 나는 분명히 그 사실을 고백하오. 그러나 나는 그 이유는 밝힐 수 없소. 그 이유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시오. 나도 그가 왜 죽었는지 잘 모르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내가 그를 죽였고 왜 그가 죽어야했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는 것이오.(2256행-2263행)

게다가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산초 오르피스는 부스또를 죽임으로써 에스프레야와의 사랑을 잃게 된다는 사실도 이미 예상하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는 고민은 했지만 결국 에스프레야와의 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스또를 제거하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즉, 그는 에스프레야와의 이별을 막기 위해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연극에서 에스프레야와의 이별이라는 비극적 운명이 불가항력인 것으로 비춰지려면 산초 오르피스는 최소한 부스또를 죽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산초의 선택은 정반대였고, 따라서 그는 결국 에스프레야와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충분히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Ⅲ. 셰익스피어적 관점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로베의 연극 『세비야의 별』은 카타르시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비극의 핵심적 본질인 ‘절대적 운명에 저항하는 주인공의 자유의지’의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베의 『세비야의 별』이 지니고 있는 비극성을 좀 더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연극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햄릿 Hamlet』 등 4대 비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비극성은 절대적 운명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주인공 자신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한 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셰익스피어 비극의 특징은 운명의 힘이나 초자연적인 신과의 관계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성격을 통한 인간본질의 탐구라고 할 수 있다.¹¹⁾

[...] 비극의 주인공이 순전히 외부 세력에 의해서 파멸된다는 생각은 Shakespeare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주인공에게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생각, 즉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일을 한 것이 오히려 그를 파괴한다는 생각 역시 Shakespeare의 것과는 동떨어진 생각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재난과 파국을 초래하는 비극적 행동들의 주된 원천은 주인공들의 성격이며, 이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셰익스피어 비극의 경우 ‘성격이 운명이다(character is destiny)’란 공식이 일단 성립되는 것이다.¹²⁾

11) 강석주,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 도서출판 동인, 1998, 139쪽.

따라서 『세비아의 별』에 나타난 두 가지의 비극적 사건들에 내포된 비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비극적 사건들을 야기한 두 주인공들인 국왕 산초 4세와 산초 오르띠스의 인간적 면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왕 산초 4세의 이기적 전횡

첫 번째 비극적 사건인 부스포의 죽음과 관련하여서는 국왕 산초 4세의 뒤편에 주목해야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설득력 있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에스프레야의 친오빠인 부스포의 어이없는 죽음을 사주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스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대한 모든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야기하게 된 산초 4세의 그릇된 면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초 4세는 그릇된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였다. 사소한 한 개인이라도 사회 규범이나 관습상 금기시하는 방식으로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는 것은 잘못된 행위일진데, 하물며 국왕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산초 4세는 세비아에 머물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에스프레야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자신의 신하 아리아스가 “당연히 그녀의 오빠가 세비아에서 그녀를 결혼시킬 것입니다.”(165행-166행)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그녀를 취할 음흉한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그릇된 방식을 택한다. 즉, 다음에서 보듯 그는 에스프레야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가 그녀를 만나보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왕. 짐이 몰래 숨어서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만나볼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별처럼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녀는 태양처럼 나를 욕망으로 불사르고 있다.

아리아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고려하심이…….

왕. 사람들의 속덕거림이 신경 쓰이는 나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짐은 살아있고, 까스띠야는 할 말은 한다. 짐은 동방박사처럼 세비아의 별인 에스프레야를 쫓을 것이다.(퇴장)(465행-476행)

12) 이경식, 『셰익스피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521쪽.

일단 계획을 세우자 산초 4세는 에스프레야를 향한 욕망에 더욱 눈이 멀게 되어 그녀를 취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그녀의 오빠인 부스프가 새벽이 다 되어서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산초 4세는 나틸데(Natilde)라는 부스프 집안의 여자노예를 다음과 같이 매수하기까지 한다.

나틸데. 모두가 다 잠자리에 들었으니 더 안전할 겁니다.

왕. 그렇다면 에스프레야는?

나틸데. 아가씨 침실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둡사옵니다.

왕. 이보게, 짐이 약속한 것으로도 충분했지만, 실제 이 문서를 가져왔노라. 이 문서로 너의 자유를 허하노라. 그리고 부스프에게는 짐이 다른 노예를 주겠노라.(917행-925행)

산초 4세는 스페인의 왕이다. 한 나라의 군주가 결혼을 기다리는 한 여인에 대한 욕정에 눈이 멀어 그 여인을 취하러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집안에 속한 일개 비천한 여자노예를 매수하여 그 노예에게 신분의 자유를 허락하는 문서를 만들어 본인이 직접 그 문서를 건네주는 이 장면은 산초 4세의 그릇된 욕망과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의 비뚤어진 인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 산초 4세는 사사로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왕권을 남용하였다. 그는 에스프레야를 취하기 위해 자신의 신하 아리아스(Arias)의 충고대로 우선 그녀의 친오빠인 부스프를 불러 “그대는 위대한 기사로다. 따라서 짐은 그대가 왕궁과 짐의 개인 방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주기를 바라노라. 왜냐하면 짐이 그대를 옆에 두고 싶기 때문이다.”(401행-404행)라고 말하며 군주로서 그에게 개인적인 특혜를 베푼다. 그의 특혜는 수궁이 갈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것이고, 왕의 특혜를 받은 부스프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뜬금없이 자신을 왕궁으로 불러 특혜를 베푸는 왕에 대해 부스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왕에 대한 경계심을 보인다.

소인은 이렇게 많은 은혜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사옵니다. (방백으로) 의심을 가득 안고 물러나는구나. 폐하께서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내가 마음에 들고 나를 명예롭게 해준다고 하시니……. 이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명예를 가지고 나를 매수하시는 것 같

다는 생각이 드네!(퇴장)(439행-444행)

물론 부스포에 대한 특혜는 그가 에스프레야의 친오빠이고 따라서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스포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몇몇하지 못하고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야심한 밤에 에스프레야의 집으로 몰래 숨어들어간 왕은 그날따라 일찍 집에 귀가한 부스포와 맞닥뜨림으로써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게다가 부스포는 침입자가 산초 4세임을 이내 알아차렸지만 짐짓 이를 모른 채하였고, 심지어 산초 4세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음에도 부스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를 집밖으로 내쫓아버린다.

네놈이 무엇이든지간에 썩 꺼져라. 그리고 다시는 폐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거라. 그리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할 때 또다시 네가 왕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나의 폐하께서는 신성한 기독교인으로서 아프리카에서 공포와 놀라움의 대상이신데, 네가 그 위대한 가치를 손상시켰다.(1057행-1064행)

그러나 부스포에게서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왕은 복수심에 치를 떨며 부스포를 제거할 궁리를 한다. 왕은 용맹한 군인으로 명성이 자자한 산초 오르디스를 아리아스에게 추천받아 그에게 부스포의 제거를 맡길 생각을 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인물이 있으니 그를 비밀리에 없애줄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산초 오르디스는 잘못이 있는 자를 왜 공개적으로 처형하지 않고 비밀리에 없애야하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왕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는 그자의 대변인으로 여기 온 게 아니고 그자를 없애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의 강한 힘을 은밀히 이용하여 그자를 죽이라고 짐이 명령하노라. 그렇게 몰래 처리하는 것이 짐의 명예를 위해 좋은 것이다. 그자가 국왕 모독죄를 범했다면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1490행-1498행)

국왕 모독죄라는 말에 산초 오르디스는 그자가 자신의 처남이 될 부스포라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자를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굳게

약속한다. 그러나 부스또는 국왕을 모독한 적이 결코 없었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간 국왕이었음을 감안하면, 자신의 사적인 잘못으로 당한 망신을 갚기 위해 국왕 모독죄를 거론하며 국왕으로서 산초 오르띠스에게 살인을 명령한 산초 4세의 행위는 왕권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고, 바로 이러한 그의 비뚤어진 성격과 이기적인 전횡이 비극적 사건을 야기했던 것이다.

2. 산초 오르띠스의 맹목적 충성심

한편 산초 오르띠스는 국왕 산초 4세처럼 도덕적인 결함을 지닌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지닌 특정 성향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여인 에스프레야와의 이별이라는 슬픈 결말을 야기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부스또를 없애라는 왕의 명령에 대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에스프레야와의 사랑이 실패할지 결실을 맺게 될지가 결정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에스프레야를 포기하고 부스또를 제거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나는 왕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논리이다. 만일 그 명령이 왕의 부도덕한 성향으로 인한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질책과 처벌은 신(Dios)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신하인 자신은 그런 판단과 별도로 무조건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그의 독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에 복종하라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니다. 존재한다. 비록 왕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법에 따라야한다. 부당한 왕을 벌하는 건 나중에 하느님이 하실 것이다. 나의 열렬한 사랑도 점점 작아지겠지. 왕의 부당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정말 불쾌한 일이지만 나는 따라야만 한다.(1731행-1737행)

또 하나는 왕과 한 약속 때문이었다. 산초 오르띠스는 기사로서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왕이 에스프레야 때문에 부스또를 죽이려한다는 사실을 대략 눈치 챘다. 그것을

알고도 그가 부스또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음의 그의 독백에서 짐작할 수 있듯, 기사로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만일 왕이 에스프레야 때문에 부스또를 죽이는 거라면? 그래서 왕이 에스프레야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라면? 그래, 맞아. 왕은 에스프레야 때문에 부스또를 죽이려는 거야. 그렇다면 부스또는 에스프레야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나는 왕을 공격하고 에스프레야를 보호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기사다. 기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1721행-1728행)

그리고 산초 오르피스와 원로 시장인 돈 페드로와의 다음의 대화에서 보듯, 그는 부스또를 없애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는 왕과의 약속도 끝까지 지킨다.

돈 페드로.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죽였다는 건 배신 때문은 아닌지요?

산초. 그가 어떤 동기를 제공해서 살해된 게 확실합니다.

돈 페드로. 누구에게 동기를 제공했다는 거지요?

산초. 나를 심각한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동기를 제공했지요.

돈 페드로. 그자가 누구요?

산초. 말할 수 없소. 그는 나에게 비밀을 요구했기 때문이요. 나는 침묵 속에서 왕처럼 가만히 있을 것이요. 나에게 이유를 묻지 말고, 내가 그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처형시킬 수 있을 것이요.(2264행-2276행)

산초 오르피스의 결백은 마지막에 사면초가에 몰린 국왕 산초 4세가 결국 “세비아여 나를 죽이라. 내가 부스또의 죽음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내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 산초 오르피를 놓아주어라.”(2946행-2950행)라고 고백하면서 밝혀진다. 그때까지 산초 오르피스는 왕에 대한 충성심과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기사도 정신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미련하리만치 맹목적인 왕에 대한 충성심과 기사도 정신을 끝까지 지켰던 대가로 산초 오르피스는 결말에서 사랑하는 여인 에스프레야와의 사랑을 잃게 된 것이다. 그의 지나치게 맹목적인 충성심이나 약속을 지키려는

지나치게 완고한 기사도 정신만 아니었으면 부스또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 자신을 비롯한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의 비참한 최후가 궁극적으로는 햄릿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허무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되었음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¹³⁾

IV.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로뎬의 『세비야의 별』은 작품 안에 내재된 비극성을 아리스토텔레스적 비극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의 핵심적 본질인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운명이 작품 안에 설정되어있지 않고, 이에 따라 비극적 주인공의 자유의지라든지 하마르티아와 같은 핵심적 개념이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셰익스피어적 관점에 따라 이 연극에서 나타나는 비극적 사건의 본질을 산초 4세와 산초 오르띠스라는 두 주인공의 성격적인 측면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질을 지닌 이 연극의 두 비극적 사건, 즉 부스또의 죽음과 산초 오르띠스와 에스프레야의 이별을 목격하며 관객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극적 감정을 느꼈을까? 이것이 바로 로뎬의 『세비야의 별』에 나타난 비극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규명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관객들은 산초 오르띠스의 지나치게 고지식한 면을 목격하며 안쓰러움이나 답답함을, 그리고 산초 4세의 전횡과 부당함 앞에서는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연극에 대한 루이스 라몬(Ruiz Ramón)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극의 그 어느 등장인물도 왕을 비난하지도 질책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왕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의 조짐조차 없다. [...]

13) 이에 대해서는 홍기창, 『셰익스피어 희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151-154쪽의 내용 참조.

왕의 명령으로 살해당한 자의 여동생인 에스프레야조차도 그 어떤 원한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리고 산초와 에스프레야는 사랑과 행복을 접고 헤어지게 되나 이에 대해 왕에게 그 어떤 원한의 감정도 나타내지 않는다. [...]

왕에 의해 자신의 삶이 짓밟혀진 그 어떤 등장인물도 항의하지 않는다.¹⁴⁾

실제로 이 연극은 자신의 친오빠를 살해한 자와는 아무리 사랑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에스프레야와 그녀의 이러한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산초 오르띠스에 대해 산초 4세가 정말 “대단한 신념 (*grande fe*)”(2997행)을 가졌다고 감탄하면서 끝을 맺는다. 연극이 끝나도록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는 없다. 아마도 관객들이 내심 기대했던 결말은 이러한 왕의 감탄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을 쥐고 전횡을 휘둘렀던 왕에 대한 단죄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절대적 권력의 부당함 앞에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한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절망감, 이것이야말로 이 연극의 원치 않은 결말을 목격하며 관객들이 느꼈을 비극적 감정이었을 것이다.

14) Francisco Ruiz Ramón, *Historia del teatro español (Desde sus orígenes hasta 1900)*, Madrid: Cátedra, 1983, p. 164.

■ 참고문헌

- 강석주,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 도서출판 동인, 1998.
- 김상봉, 『그리스비극에 대한 편지』, 한길사, 2004.
- 민병욱, 『희곡문학론』, 민지사, 1991.
- 아리스토텔레스, 호라티우스, 플라톤, 『시학』,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1993.
- 이경식, 『셰익스피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홍기창, 『셰익스피어 희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Campbell, Ysla, “Filosofía moral en *La estrella de Sevilla*”, *Lectura y signo*
Vol. 2, 2007
- Vega, Lope de, *La estrella de Sevilla*, Madrid: Cátedra, 1991.
- _____, *Arte nuevo de hacer comedias*, Madrid: Castalia, 2011.
- Rodríguez López-Vázquez, Alfredo, “La Estrella de Sevilla y Claramonte”, *Criticón*
Núm. 21, 1983.
- Ruiz Ramón, Francisco, *Historia del teatro español (Desde sus orígenes hasta 1900)*, Madrid: Cátedra, 1983.

❖ ABSTRACT

Study on Tragic Characteristic in Lope's Drama
La estrella de Sevilla

YOON, Yong-wook

La estrella de Sevilla, is a representative masterpiece of the Golden Age of Spain, and is a tragic work of Lope de Vega, who was a representative drama writer living in the 17th century. However, regardless of its great literary value, there are insufficient researches on this drama even in Spain, due to several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truth about Lope's creation. Here, this research concretely investigated the tragic characteristic of this drama, by largely dividing it into the viewpoint of Aristotle and Shakespeare. Thanks to the noble social status of the characters and proper dialogue of the hero Sancho Ortiz in trouble, there seems to be no problem in performing the cathartic function that Aristotle mentioned regarding the work in his review. However, there are a few problems in the aspect of the 'hero's free will to resist the absolute fate,' which is fundamentally the essence of the associated Aristotelian tragedy. Because, there's no Hamartia in this drama, the core mechanism that forms the absolute fate, makes the statement that accordingly, no absolute fate or irresistible force of destiny is established. Rather, the tragic characteristic of this drama can be more properly investigated from the viewpoint of Shakespeare. As noted differently from Aristotle, Shakespeare considered that the tragic characteristic came from the hero's characteristic. According to him, tragedy starts from the hero's value view and personality, instead of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an absolute fate. Actually, Busto's death and separation between Sancho Ortiz and Estrella, two tragic affairs of *La estrella de Sevilla*, were caused by the crooked selfishness of King Sancho IV, who abused his authority, and

Sancho Ortiz' excessively blind loyalty to the King, rather than the irresistible event. In conclusion, in light of a lethargic and hopeless situation, with no eventual choice of options before the injustice of absolute power, is must have been a significant tragedy for the audience, witnessing the play's tragic ending.

Key Words : absolute fate, characteristic, viewpoint of Aristotle, viewpoint of Shakespeare, Lope' tragedy

■ 논문접수일 : 2018. 02. 10

■ 심사완료일 : 2018. 02. 28

■ 게재확정일 : 2018. 03. 01